

# 도교육청, 혐오표현 줄이기 '앞장'

### 2~16일까지 1층 로비서 '혐오표현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전시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혐오표현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혐오표현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전시회를 3월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혐오표현 근절을 통해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혐오표

현에 대한 교육공동체 차원에 문제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혐오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혐오표현이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혐오표현'의 사례 등을 알리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자가 무슨 축구야, 개 때문에 젖어", "남자가 왜 저렇

게 말이 많아" 등과 같이 가벼운 농담으로 한 말들도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정신적 모욕감을 넘어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혐오표현 없는 건강한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소개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시회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환기시키고 학교현장에서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총 10개로 만들어진 혐오표현 근절 캠페인 전시회는 도교육청 로비에서의 전시 이후 각급 학교 및 도교육청 관련 행사장에 순회 전시 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메카 자리매김

### 전북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과 손을 잡고 연기금관련 학과를 개설한 전북대는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지난해 12월 개설한 학부과정인 연금관리학전공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연금관리학과를 사학연금공단과도 협력, 운영하게 됐다. 양 기관은 연금관리학과 운영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강의 지원, 정보교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상호 협력기로 했다.

또한 전북대는 사학연금공단 임직원들에게도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연금관리학과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길석 교수는 "향후 연기금 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방식의 변경도 예상됨에 따라 연기금 관련 전문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 "전라북도도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중심 금융도시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사학연금공단과도 함께 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사학연금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분야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교원 5명 정년퇴임식 개최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간소하게 진행

전주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대학본관에서 교직원 5명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년퇴임한 교원은 최희섭(영미언어문화학과), 고태욱(스마트미디어학과), 유정숙(영어교육학과) 교수와 직원은 천문정(경영대학), 김영석(기초융합교육원) 실장 등 5명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된 정년 퇴임식에는 이호인 총장을 비롯해 교무위원 등 교내 인사와 정년퇴직자 가족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호인 총장은 정년퇴임하는

교수와 직원 모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이호인 총장은 "전주대학교에서 일생을 교육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교수님들과 실장님들의 뜻을 이어 학문과 대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퇴임하는 유정숙 교수는 "지난 40년 동안 가족보다도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다"며 "학교는 떠나지만 어디에서라도 전주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는 지난 2월 28일 대학본관에서 교직원 5명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천문정 실장은 "학교가 낱알이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매일 즐거웠고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전주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퇴임식에서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정숙 교수가 황조근정훈장, 고태욱 교수가 녹조근정훈장, 최희섭 교수가 육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대학 내 모든 시설물에 소독·방역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 내 다중시설 운영 잠정 중단에 이어 시설물 방역작업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2주 동안 대학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소독 및 방역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대학 내 감염을 막고,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및 유치원 휴원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들을 위해 오는 6일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가 향후 더욱 확산 양상을 보일 경우 직원 2교대 근무나 방대시설 전면 운영 중단, 외부인 출입 전면 통제, 특별한 응무와 학생 출입 금지 등 더욱 강화된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학교 코로나19 대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학의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고, 범정부적 협조체제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원광대 퇴직 직원들, 자가 격리 유학생 도시락 배달 봉사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퇴직 직원들이 대학 기숙사에서 자가 격리 중인 유학생들의 도시락 배달 봉사에 나섰다.

정년퇴임을 했거나 3월부터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직원 8명은 자가 격리 유학생들을 지원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스스로 봉사팀을 꾸려 하루 세 차례씩 도시락을 각 실에 전달하고, 식후 회수까지 맡아 처리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발열 체크나 불편 사항 점검 등 14일의 자가 격리가 안전

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하는 등 다른 지원업무도 뒷받침하고 있다.

원광대는 입국하는 유학생들을 공항에서 대학까지 익산시 지원을 받아 버스로 수송해 자가 격리를 유도하고, 교내 글로벌교류센터를 1인 1실 격리 시설로 지정하여 교직원들이 매일 도시락과 위생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300명 이상의 중국인 유학생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는 34명이 글로벌교류센터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익산=장영민 기자

## 도교육청, 지구살리기 활동 동참

###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 기준년도 대비 30%이상 감축키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에너지 절약 실천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2020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 지구살리기 활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준년도(2018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30%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운영,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적을 분석 평가한다.

또 각 실·과별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하여 전력 절감, 조명기기 소등, 미사용 사무용 기기 관리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지킴이를 중

심으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울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해 청내 조명을 LED등으로 100% 교체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이 밖에도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생활속 에너지 절약 습관 정착을 위한 직원·학생·학부모 교육 강화, 전력수급 위기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관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해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천 중심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구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